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업종일등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80% 수준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환경문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89억 원

-모투자신탁 204억 원

펀드유형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2015년 12월 11일 모자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5년 01월 18일)

- 클래스 A : 2014년 08월 05일
- 클래스 A-E : 2014년 08월 08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19일
- 클래스 C-F : 2022년 12월 15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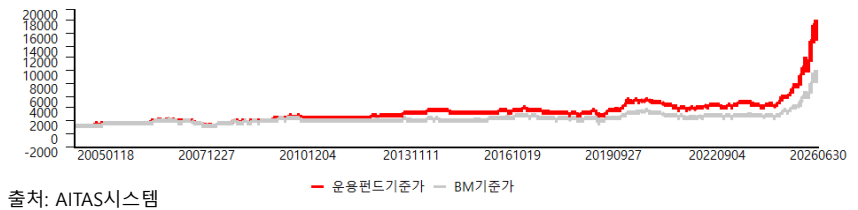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15%	71.13%	107.60%	193.24%	232.11%	278.38%	214.89%	1,576.18%
클래스 A	-0.29%	70.54%	106.07%	188.82%	221.73%	260.37%	189.69%	335.63%
클래스 A-E	-0.25%	70.71%	106.48%	189.99%	224.42%	265.04%	196.14%	360.96%
클래스 C	-0.34%	70.32%	105.50%	187.18%	218.01%	254.10%	181.26%	485.88%
클래스 C-E	-0.30%	70.52%	105.98%	188.52%	221.07%	259.28%	188.23%	416.84%
클래스 C-F	-0.22%	70.87%	106.87%	191.10%	227.01%	269.49%	-	308.36%
클래스 C2	-0.33%	70.44%	105.70%	187.66%	218.96%	255.70%	183.37%	450.49%
클래스 C3	-0.32%	70.48%	105.81%	188.00%	219.89%	257.09%	-	192.10%
클래스 C4	-0.31%	70.51%	105.92%	188.42%	220.68%	261.36%	-	314.70%
클래스 C5	-0.30%	70.56%	106.03%	188.63%	221.20%	259.42%	188.33%	481.57%
벤치마크	0.00%	67.77%	101.14%	175.95%	202.97%	230.56%	157.12%	81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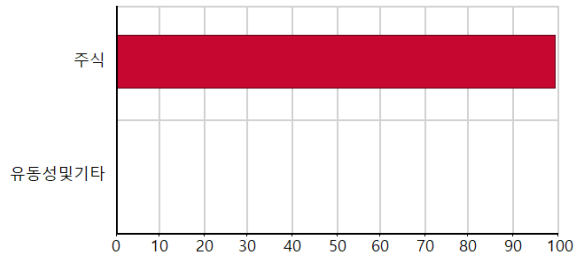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6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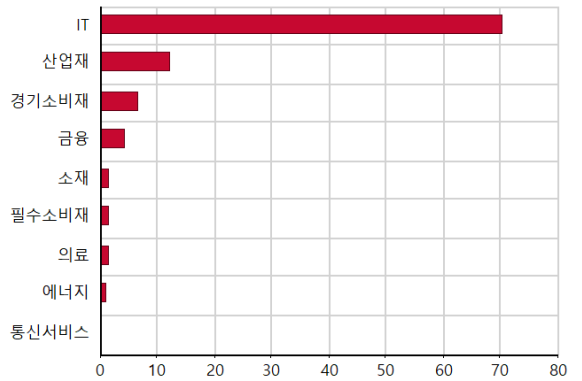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99.5
2	유동성및기타	0.5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70.4
2	산업재	12.2
3	경기소비재	6.9
4	금융	4.5
5	소재	1.5
6	필수소비재	1.4
7	의료	1.4
8	에너지	1.0
9	통신서비스	0.2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6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9.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7.0
삼성전기	전기.전자	3.8
SK스퀘어	금융	3.6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2

종목명	업종명	비중(%)
신세계	유통	1.9
삼성물산	유통	1.4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1.4
KB금융	금융	1.3
현대모비스	운송장비.부품	1.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0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255% (판매 0.45%)
- 클래스 C : 총 연 2.30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805% (판매 1%)
- 클래스 C-F : 총 연 0.835% (판매 0.03%)
- 클래스 C2 : 총 연 2.175% (판매 1.37%)
- 클래스 C3 : 총 연 2.05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3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805%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4%, 사무관리 0.015%

선취수수료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클래스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클래스 C, C-E, C-F, C2, C3, C4, C5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KOSPI는 전월 대비 0.00% 상승한 8,476.48pt, KOSDAQ은 14.76% 하락한 916.18pt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KOSPI 지수는 6월 한달 간 보합으로 마감하였으나, 월 중 서킷 브레이커 3회, 사이드가 9회가 발동되며 일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높은 수준의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월 초부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반도체 대형주의 독주와 젠스 항 방한 기대감으로 9,000pt 돌파 시도를 하였으나, 브로드컴 실적 가이드스에 대한 실망감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 급등 우려가 겹치며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며 다시 7,400pt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국 금리 상승 부담과 미구과 이란 갈등 고조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가 확산되며 투자심리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미국과 이란 종전 MOU 체결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재개 소식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더해지며 KOSPI 지수는 사상 첫 9,000pt 선을 돌파하였고, 9,300pt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월말로 갈수록 반도체 고점론이 재부각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며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인터넷,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1.50원으로 전월 대비 2.37% 상승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20.44% 하락한 배럴당 69.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5조원과 2.6조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역대급 규모인 58.7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유통 업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기계, 자동차, 전자부품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자산 가치 상승과 성과급 지급으로 국내 소비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원화 약세 혜택을 본 외국인 관광객까지 명동 본점 등 핵심 점포로 몰려와 명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신세제와, SK하이닉스 급등에 따른 지분가치 재평가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자사주 소각-배당 등) 기대감이 맞물려 지주사 할인율이 빠르게 축소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SK스퀘어,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HBM과 고성능 D램 투자를 유례없이 늘리면서 실적 장비 주주가 쏟아짐과 동시에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 테스트 순환 소식에 급등한 브이엠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나, 국내·외 차량 판매 감소에 따른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미국 태양광 정책 발표 지연으로 관망세가 확산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OCI홀딩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매매로는 전자부품과 인터넷의 차익실현하여, 양극화된 프리미엄 소비 수혜와 원화 약세로 인한 인바운드 소비증가에 수혜가 기대되는 화장품과 유통 업종 그리고 기업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국면에서 방어력이 높은 은행 업종을 비중확대 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은 매크로 이슈들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집중하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의 경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이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를 축소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은 7월 FOMC에서의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발언이 매패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월 FOMC에서 물가와 단기금리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장기금리 전망은 3.1%로 유지하고 있어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 부담을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고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어 금리 불안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KOSPI지수의 이익 추정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경우 하반기 이후 추가적인 메모리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6월 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하반기 실적 추정치는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월에도 이익 추정치 상향을 바탕으로 한 주도주와 소외주의 격차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부담감과 KOSDAQ 지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으로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며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도주의 이익 모멘텀이 재차 강화되는 국면을 맞이하여, 지수는 전고점을 다시 경신해가는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7월 KOSPI는 미 연준의 매패적 스탠스와 금리 인상 경계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가운데, 유가 안정으로 경기와 물가 부담이 완화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쏠림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반도체 조정 시 여타 업종이 순환 상승하며 쏠림과 확산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의 높은 이익 기여도와 구조적 공급 부족에 기반한 수출 호조를 감안하면 KOSPI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국내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공정 장비, 부품, 소재 등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의 단기 쏠림 부담과 3분기 실적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차익실현을 병행하고, HBM4 국면에서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포지션을 방어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현금은 반도체 소부장,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 유효한 방산, 전력기기 및 조선, 수출 회복이 확인되는 2차전지, 백화점 중심의 프리미엄 소비 수혜주, 기업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국면에서 방어력이 높은 은행주로 선별 리밸런싱할 계획입니다. AI 투자 경쟁의 한계와 밸류에이션 부담은 7월 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판단합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사이클은 지속되더라도 단순 기대감보다 실제 이익 창출력과 투자 여력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선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시장은 과거 닷컴버블과 같은 밸류에이션 장세보다는 실적 중심의 장세에 머물러 있어, 반도체 쏠림이 완화되더라도 반도체, IT하드웨어, 조선, 기계 등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으로 자금이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환율과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경우 코스닥 시장의 회복은 제한될 수 있어 비중 확대를 서두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반도체, AI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금융주 중심의 핵심 포지션은 유지하되, 과열 증가는 선제적으로 차익실현하고 낙폭 과대 실적주의 비중을 확대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률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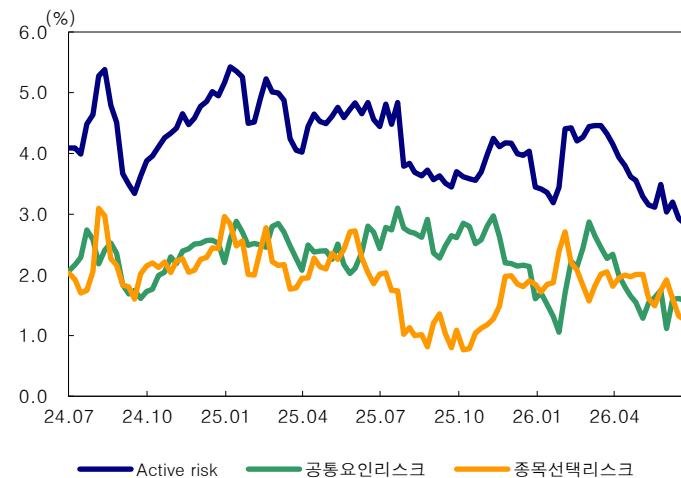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수익률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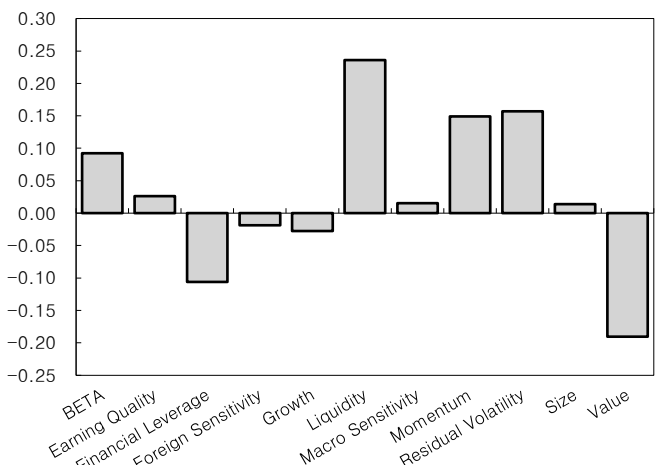
	2026-06-30	2026-05-29
Active Risk ¹	2.75%	3.49%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1.25%	1.74%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57%	2.33%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32%	-0.59%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1.50%	1.74%
베타	1.21	1.19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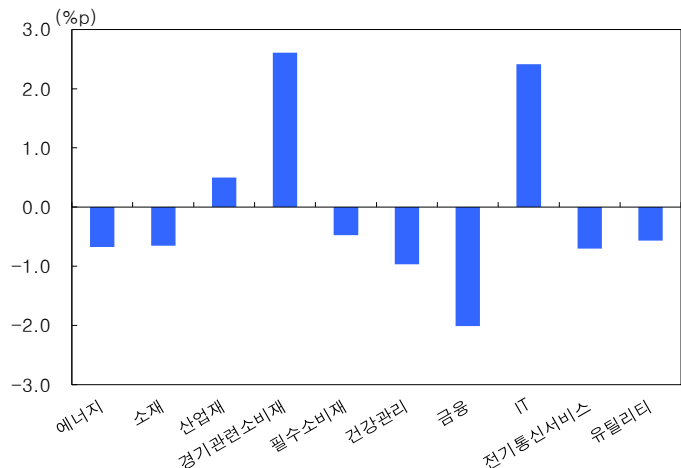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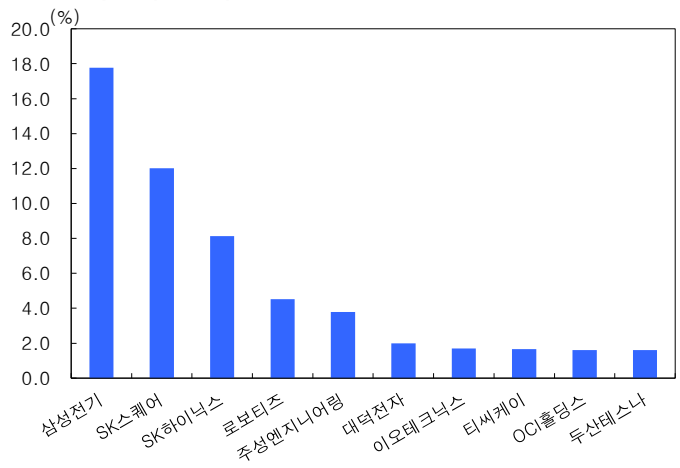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6월말 현재, 업종일등ESG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2.75%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5개 종목 감소하여, 79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경기관련소비재',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산업재',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5월말 기준으로는 '삼성전기'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OCI홀딩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